

◎ 世界經濟 貿易量 增加로 成長 回復勢

金 成 哲

〈産業研究院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1. 世界經濟, 成長 다소 회복될 듯

世界經濟의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景氣回復局面에 進入하리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美國, 英國, 共產圈 경제의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기회복에 대한 비관론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92년에는 경기둔화가 두드러졌던 美國, 英國의 경기는 회복되고 日本, 獨逸의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景氣擴大局面을 지속해 온 세계경제는 成長同調化 현상을 보여 주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美國, 英國의 경제는 성장둔화 현상을 나타내는 반면 日本, 獨逸은 경기확대국면이 나타나는 成長二分化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主要 國別로 景氣動向 分析 및 展望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 經濟는 장기간의 경기확대국면에서 벗어나 89년말부터 경기후퇴국면에 접어들어 90년 4·4분기부터 91년 2·4분기까지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금년초에만 해도 미국 경제는 걸프戰의 조기종결로 油價急騰이 주도하는 물가상승 압력이 해소되고 위축되었던 消費支出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에 成長後退局面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소비지출의 정체가 두드러지고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여력이 약화되었으며 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로 불량채권

의 보유가 증대하는 등 資産內容이 왜곡됨에 따라 금리인하에도 통화량이 늘지 않는 資金梗塞 현상이 심화되어 기업설비투자 등 內需를 부진하게 하였다.

3·4분기 들어서는 금리인하에 힘입어 민간소비지출, 기업설비투자, 주택건설투자 등이 되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의 선두적 결정요인인 산업생산 증가와 재고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92년에는 금년의 예측치인 -0.2% 성장보다 회복된 2.7%의 건실한 성장률이 전망되는데 주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金融緩和의 지속이 내수부문의 회복을 신장시켜주며 둘째, 재정정책은 재정적자 누적으로 경기부양여력이 줄어들었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부시행정부의 경기회복에 주력하는 정책이 두드러질 것이며 셋째, 민간소비지출이 소비자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아서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우나 부채감소, 물가안정,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소폭 회복되며 넷째, 상업은행의 대출역제가 금년에 크게 부진한 企業設備投資의 확대에 어려움을 주나 금리인하, 기업의 채산성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日本 經濟는 91년에 4.1%의 성장률로 건실한 성장을 하였으나 92년에는 3.5%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는 정부주도형,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시장경제형,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헤이

세이경기(平成景氣)라 불리는 최근의 경기확대국면은 60개월째 접어들어 戰後 57개월로 최장의 景氣擴大期였던 이자나기정기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 경제는 경기선행지수가 낮아지고 산업생산도 줄어들고 있으며 기계수주 또한 감소하고 있어 景氣減速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경제는 내년에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첫째, 金融緩和政策에도 불구하고 대출수요감소로 내수증진이 크지 못할 것이며 둘째, 노동시간 단축, 주가하락, 버블 경제의 붕괴에 따른 負의 資産效果로 민간소비가 부진하며 셋째, 다만 일본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설비투자는 대출감소, 투자마인드 냉각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경영합리화, 에너지절감투자 등으로 대체하여 급격한 투자의 부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獨逸 經濟(舊西獨 經濟)는 87년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88년부터 資本財 수출호조, 설비투자확대가 나타나면서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다. 90년에는 東·西獨의 완전통일로 舊西獨은 경기호조가 지속되어 4.5%의 높은 성장을 하였으나 舊東獨은 경쟁력 열위에 따른 기업도산 급증,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 부족 등으로 불황을 초래 -12.7%의 저성장을 하였다.

92년에 獨逸의 성장률은 91년의 예측치인 2.0%보다 다소 높아진 2.2%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舊東獨이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에 따른 설비투자확대, 재정지원 증대로 크게 회복되나 舊西獨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소비자물가는 90년에 경기호조의 여파와 걸프사태 등으로 5.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91년에는 내수부진으로 4.0%로 낮아지며 92년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油價 및 1차산품 가격의 안정과 각국 정부의 물가억제노력으로 더욱 낮아진 3.6%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0년에 유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5.4%까지 높아졌으나 91년에는 경기둔화,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4.2%까지 낮아질 전망이며 92년에는 유가안정, 생산성 향상으로 더욱 낮아진 3.6%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된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90년에 경기호조로 3.1%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91년에는 에너지·農産物價格은 상승했으나 경기둔화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92년에는 에너지가격 안정, 경기감속 등에 따라 2.2% 내외의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獨逸의 소비자물가는 90년에 2.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91년에는 統獨特需와 消費稅 인상 등의 영향으로 3.5%의 높은 상승률이 예상되며 92년에는 금융긴축에도 불구하고 舊東獨地域의 消費需要增加,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등으로 3.6%로 높아질 전망이다.

2. 世界貿易量 增加率, 내년에 높아질 듯

최근의 국제무역환경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형적으로는 GATT의 자유무역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非關稅障壁 등 保護貿易政策手段을 강화하고 있어 무역정책의 양면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끌어온 UR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주요국의 이해대립으로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역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멸되지 않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내년 초까지는 UR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여 무역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89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세계무역량 증가율은 90년에 세계경기 둔화조짐과 걸프사태에 따른 油價急騰의 영향으로 4.3%를 나타내었다. 91년의 세계무역량 증가율은 세계경기의 부진, UR 협상 타결의 지연 등으로 90년보다 더욱 낮아진 2.4%를 나타내나 92년에는 세계경기의 회복,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제거 등 무역환경개선에 힘입어 5.5%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별로 수출입 추이 및 무역수지 전망을 해 보면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가 91년에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감소와 달러貨 약세에 의한 수출증가로 크게 줄어들어 지난 8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나 92년에는 海外景氣回復으로 수출이 증대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가 예상 되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무역적자(통관기준)는 지난 7년간 연속적으로 1,000억 달러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87년에는 1,521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7년 이후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달러화 약세에 힘입은 수출증가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수출을 物量基準으로 보면 91년에 제조업의 경쟁력회복, 開途國에 대한 첨단산업제품(ATP) 수출호조 등 수출증가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美 달러화의 強勢反轉, 일본 및 아시아국가의 내수부진, 美企業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생산감소 등으로 6.0%를 나타내고 92년에는 해외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요인에도 불구하고 美 달러화 강세 등 경쟁력약화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보여 91년보다 낮은 4.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입물량 증가율은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제조업의 품질경쟁력약화로 외국산제품을 선호

하는 구매관습을 갖고 있어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무역적자누적에 기여했으나 90년에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內需部門이 둔화되면서 3.3%로 크게 낮아졌다. 91년에는 內需不振深化 및 90년 하반기의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2.0%로 낮아지나 92년에는 설비투자 등 내수회복으로 관련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7.0%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經常收支赤字는 금년 들어서 2분기 연속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移轉收支는 주요 선진국으로부터의 걸프지원금 증가에 힘입어 흑자로 반전되었고 투자수익도 점차 증가하면서 무역외수지도 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개선되나 내년에는 貿易赤字增加, 移轉收支惡化 등의 요인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4년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나 금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의

92年 世界經濟 展望

<表-1>

(單位 : %)

		世界	先進國	美國	日本	獨逸	프랑스	英國	開途國
經濟成長率 ¹⁾	1990	1.0	2.4	1.0	5.6	4.5	2.8	0.8	2.9
	1991	0.1	1.0	-0.2	4.1	2.0	1.5	-1.8	3.0
	1992	2.2	2.8	2.7	3.5	2.2	2.6	2.2	4.5
失業率	1990	—	7.2	5.5	2.1	6.2	9.0	5.8	—
	1991	—	8.1	6.8	2.1	8.1	9.7	8.2	—
	1992	—	8.1	6.4	2.2	8.2	9.2	9.6	—
消費者物價上昇率	1990	—	5.0	5.4	3.1	2.7	3.4	9.5	—
	1991	—	4.0	4.2	3.0	3.5	3.2	5.8	—
	1992	—	3.6	3.8	2.2	3.6	2.9	3.6	—
貿易伸張率 ²⁾	1990	4.3	5.2	3.3	5.8	12.8	5.2	1.2	3.4
	1991	2.4	3.5	2.0	3.0	11.0	2.5	-2.5	2.0
	1992	5.5	5.0	7.0	4.0	5.5	5.5	4.0	7.3

資料 : DRI, Review of the U.S. Economy, Oct. 1991.

—, European Country Reports, Sep. 1991.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1.

NIEB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3·4분기 1991.

註 : 1) 美國, 日本, 獨逸는 실질 GNP, 나머지는 실질 GDP 기준임.

2) 세계무역량 증가율은 수출·수입물량 증가율의 평균치, 나머지는 수입물량 기준임.

무역흑자는 86년에 827억 달러로 최고수준에 달한 후 엔高(플라자合意 이후)에 수반된 가격경쟁력 저하, 現地生産擴大, 시장개방확대 및 내수주도의 성장세 등으로 무역흑자의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급년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역흑자의 증대요인을 보면 수출에서는 對美輸出보다 對EC, 對아시아의 수출에 주력하는 수출선 다변화정책의 성공, 엔高에 의한 J커브 效果, 이밖에 統獨과 중동지역의 復興需要 등 특수가 존재하는 지역으로의 자본재 수출호조, 동남아 및 ASEAN 지역의 경제성장과 관련 소비재 및 부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수입에서는 최근 몇 년간 株價上昇, 地價上昇 등 자산효과로 급증하였던 고급자동차, 미술품 등 고가품 수입이 버블 경제의 붕괴로 크게 감소한 점, 걸프戰의 早期終戰에 따른 유가안정으로 석유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의 원유 및 석유관련제품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92년에도 일본의 무역흑자는 기업의 交易條件改善, 수출선 다변화정책의 주효, 품질경쟁력 제고 등 수출호조요인과 민간소비수요 감소, 國際油價의 하락 등 수입감소요인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物量基準 증가율을 보면 달러貨 基準의 높은 증가율과는 달리 91년에 세계경기둔화와 對美 수출부진으로 3.5%를 나타내나 92년에는 對美 수출증가, EC에 대한 수출호조 등으로 이보다 높은 5.3%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물량 증가율은 91년에 버블 경제의 붕괴에 따른 資産效果와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3.0%로 낮아지나 92년에는 內需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지만 美國, EC로부터 시장개방 확대요구 증가, 종합상사의 수입판매 활동강화 등이 예상되어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과 더불어 최대의 무역흑자국으로 군림해 왔던 독일 경제가 統獨에 따른 급속한 수입수요증대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9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무역흑자감소요인을 보면 독일 마르크貨의 강세, 주수출품이었던 자본재, 투자재의 舊東獨 경제재건을 위한 供給財로의 用途變更, 設備稼働率이 포화상태에 이르

러 수출여력이 한계에 달한 점, 첨단산업제품의 품질경쟁력 약화, 미국의 경기둔화 등 수출부진요인과 舊東獨의 설비투자확대를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요증가, 연방정부의 舊東獨에 대한 移轉支出增加로 소비수요가 증가한 점 등 수입증대요인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統獨에 따른 높은 수입수요분이 무역수지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獨逸의 무역흑자는 92년에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출이 회복되는데 힘입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출물량 증가율이 92년에 세계경기회복, 對內供給이 충족됨에 따른 자본재 등의 수출여력 증가,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대 등이 예상되어 5.0%로 높아질 전망이며 수입물량 증가율은 92년에 統獨에 따른 輸入需要분이 한계에 달해 전년보다 크게 낮은 5.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달러貨 回復豫想, 금리기조는 국별로 상이할 듯

달러貨는 91년말을 고비로 일본 엔貨 및 독일 마르크貨 등 유럽통화들에 대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美國 經濟가 큰 폭의 금리인하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美國 物價의 안정과 일본, 독일 등 여타 선진국들의 금융완화에 의해 달러貨 및 달러貨 表示 金融資産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달러貨 換率은 92년말에 달러당 140엔, 1.70마르크대에 이르고, 實效換率로는 91년말 대비 약 6~7%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貨의 기간별 환율변동을 보면 90년 6월말 달러당 152.9엔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경기부진과 美·日間 短期金利 逆轉 등으로 90년 하반기부터 主要 通貨에 대해 속락세를 거듭하여 90년말에 달러당 135.4엔, 1.49마르크로 거래를 마감하였고 91년 초까지 달러貨 약세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걸프戰 이후에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수출호조 등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속에 달러貨 價値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9월 중순까지 달러당 135~140엔,

1.7~1.8마르크대에서 유지되었고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추어지고 美聯準의 금리인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면서 달러貨는 일본 円貨 등에 대해 다시 약세를 띠고 있다.

일본 円貨는 91년 3월부터 9월까지 달러貨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으나 유럽통화들에 대해서는 90년 하반기부터 줄곧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円貨 가치는 92년에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장세 감속과 더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일본의 실질금리가 92년 중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약 3~5%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海外景氣의 회복과 함께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를 비롯한 주식, 채권 등 外貨表示 資産買入이 다시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 마르크貨는 89년 11월부터 91년 초까지 달러貨에 대해 절상추세를 거듭하였으나 91년 2월 이후 큰 폭으로 절하되었다. 이는 국내의 자본유치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독일의 금융긴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마르크貨 수요가 증대되어 왔으나 91년에 들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졌고 또한 경상수지적자와 더불어 舊東獨地域에서의 경제난이 심화됨으로써 마르크貨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貨 價値는 92년에 소폭 하락할 전망이며 92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및 독일의 금리인하 문제가 거론되면서 마르크당 75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換率, 金利, 油價 展望

<表-2> (單位: 年率, %, 달러/배럴)

	1991	1992				1992
		I	II	III	IV	
¥ / \$	132.0	133.0	135.0	138.0	140.0	140.0
D M / \$	1.620	1.640	1.650	1.680	1.700	1.700
연방자금금리	4.50	4.50	4.50	4.50	4.50	4.50
유로달러금리 (3개월분)	5.00	5.00	5.10	5.30	5.30	5.30
W T I 油價	21.6	-	-	-	-	20.4
Dubai 油價	16.5	-	-	-	-	15.3

資料: <表-1>과 같음.

92년에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는 물가상승세 둔화 등에 따라 91년말에 비해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는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을 반영해 92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방자금금리는 하반기에 약 0.25% 포인트 인상은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물가안정을 토대로 91년에 이어 92년에도 계속 금융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는 지난 87년 이후 처음으로 공정할인율을 약 0.5% 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4. 國際油價 소폭 하락할 듯

국제유가는 WTI 基準 작년의 배럴당 24.3달러에서 금년에 21.6달러, 내년에 20.4달러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油價의 경우 90년의 20.2달러에서 91년에 16.5달러, 92년에 15.3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분간 국제석유시장에서 가격상승요인보다는 하락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가하락요인으로는 첫째, 정치적·기술적요인으로 수출이 중단된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내년에는 각각 하루 100만 배럴, 200만 배럴 이상 생산, 수출할 것이고 둘째, 사우디, UAE, 이란 등 주요 OPEC 회원국이 產油設備能力을 증강 중이며 셋째, 걸프전쟁으로 인해 하루 3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고 있는 사우디는 현행의 OPEC 산유체제가 크게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1월말에 열린 OPEC 정기총회에서 사우디의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내년 1·4분기의 산유쿼터를 현재체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非石油 1차산품은 세계최대 資源消費國인 미국의 경기후퇴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소련, 중남미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90년의 7.2% 하락에 이어 91년에도 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92년에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資源需要增加에 힘입어 2.1%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